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엘리아 예언자 / 7월 20일

제4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아티노게니스 사제순교자

제5조 /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5조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 교부들 찬양송 / 85, B 178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디도 3,8-15 / 봉독서 539
- 복음경 : 마태오 5,14-19 / 163, B 15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천둥 번개에 대한 두려움”

어느 날 심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그치고 난 후, 어떤 이가 성인의 수도처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성인은 방금 잠에서 깨어나셨고 피로가 가신 상쾌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는 성인께 물어보았습니다. “신부님, 이런 천재지변에도 어떻게 그리 편히 주무실 수 있나요?”

성인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러지요?”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걸릴 만큼 놀랐었는데, 왜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천둥 번개가 쳐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 누구든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없던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던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저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식 없이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로마 12,9)

복음서의 도덕과 윤리의 모든 뿌리는 ‘사랑’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사랑은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참된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가면을 쓰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 위선적인 것을 분별하기가 쉽다. 그러나 가면을 벗어던진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행세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금으로 씌운 동전이 겉으로는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화려하지만, 특수한 화약 약품에 넣으면 겉이 닳아고 안의 금속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은 언젠가는 진실 앞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고린도1서 13장에서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말하며 가식적인 사랑을 지적하고 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으면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위선적인 사랑이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도 위선적인 사랑으로 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느껴서 그에 대한 참된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해주며 신앙생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의 구원은 물론 이웃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적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원동력이 된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세상에는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선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은 자신도 만족하고 남을 만족시키며 행복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구원해주지는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참된 사랑만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영혼의 구원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참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서로 다르지만, 그 은총의 선물로써 서로가 부족함을 메꾸며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참된 사랑에는 어떠한 권력의 위치와 부와 학벌에 차별을 두어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존중받아야 한다. 편견과 차별은 가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는 멀어져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게 한다. 나의 은총이 상대방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때부터 가면을 쓰게 되고 위선적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그에 합당한 행동은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무성한 잎을 가진 나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열매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로마 12,10-11)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세 가지 소원

많은 나라를 정복한 뒤,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 죽음을 앞둔 채 침상에 누운 그는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마지막 소원 세 가지를 말하였다.

첫째, 최고의 의사들이 자신의 관을 운구할 것.

둘째,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들(돈, 금은 보석 등)은 묘지에까지 이르는 길가에 흩어 버릴 것.

셋째, 자신의 두 손을 싸매지 말고 풀어서 관 밖으로 내놓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할 것.

이런 비범한 요청에 놀란 한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첫째, 최고의 의사들이 내 관을 운구하도록 한 것은 죽음 앞에서는 제아무리 최고의 의사일지라도 치료할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의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죽음의 손아귀에서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다.

둘째, 묘지로 가는 길이 금화, 은화 등과 온갖 값비싼 보석들로 덮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지상에서 얻은 물질적 부는 지상에 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부를 좇아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따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다.

셋째, 나는 내 손이 바람에 흔들거리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빈 손으로 왔으며 또한 빈 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다. 내 시신을 묻을 때에는 어떤 기념물도 세우지 말고, 두 손이 밖으로 나오게 묻으라.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상당한 부분을 정복한 한 인간일지라도 죽었을 때에는 그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1. 부(富)는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2. 너 자신을 위해 한 것은 너와 함께 죽는다. 그러나 다른 이를 위해 한 것은 영원히 살아있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신데즈모스 수련회 ▷ 올해 여름 신데즈모스 수련회를 7월 21일(금)~23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특히, 오늘날 청년들의 영적 삶에 있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신데즈모스 회원께서는 모두 참여해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성당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5만 원입니다.
- 여름 수련회(English Camp) ▷ 올해 춘천에서 있을 여름 수련회(English Camp)가 다음 주제와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 주제 / ‘하느님 나라의 아이들’
 - 초등부 / 7월 29일(토) - 8월 4일(금)까지, 회비 : 15만 원
 - 중·고등부 / 8월 4일(금) - 8월 6일(일)까지, 회비 : 5만 원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유익하고 영적인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수련회는 정교회에서 세례 받은 아이들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와 같이 참여하면 정교회의 유익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7월 16일)까지**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출국 ▷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지난 7월 10일 그리스와 피시디아의 성당 사목을 위해 약 두 달 일정으로 출국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무사히 일정을 마치시도록 기원합니다.
- 교황청 시스티나 성당 합창단 내한 공연 참석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정교회 대주교님께서 지난 7월 5일 천주교 서울 명동 성당에서 있었던 교황청 시스티나 성당 합창단 공연에 초청받아 참석하여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구세주 변모 수도원 방문 ▷ 지난 7월 1일 토요일에 성 바울로 성당의 청·장년회 회원 7명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수도원에서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함께 성모기립찬양 예배를 드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여름 수련회 ▷ 7월 28일(금)~30일(일) 동안 유·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을 것입니다. 회비는 3만 원입니다.
8월 13일(일)~15일(화) 동안 청년회 수련회가 있을 것입니다.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주간 예식

- 7월 17일(월) 성 마리아 대순교자, 성 베로니카 순교자 축일
- 7월 20일(목) 엘리야 예언자 축일
- 각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